



▶ 잠비아 영락기독교학교에서

제공: WMM

돈 없이 값없이

Donated By Kwon's Family(권씨 일가 기증), Donated By Kim Kyung Hee(김경희 기증)...

아이들이 앉아있는 책상마다 기부자의 이름이 흰색 페인트로 새겨져 있다. 잠비아의 아이들에게 책상을 기부한 이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먼 나라의 낯선 이름과 성을 가졌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돈 없이 값없이 잠비아의 교실까지 흘러온 사랑에 얽고 기대어 공부하는 아이들. 이 사랑은 단지 책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고, 아이들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돈 없이 값없이 받은 자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

낸다. 천국에 보화를 쌓고, 다른 생명을 살린다. [GNPNEWS]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누가복음 6:38)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북한 지하교회 존재, 보위부 총화에서 밝혀져

지하교회, 북한 정부에 색출 당하고 일망타진 당해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가 북한 보위부 생활총화 교육 현장에서 밝혀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3일 보도했다.

전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창호 목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에 도착한 한 탈북자가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 보위부가 진행하는 생활총화에 참가했는데, 북한의 많은 지역 기독교인들의 이름과 장로, 집사 직분까지 써가며 설명해 줘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 탈북자는 ‘기독교를 믿는 것은 간첩죄에 해당하며 국가 반역죄에 속해 중국으로 월강해도 절대로 선교사나 교회에 가선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선교사들을 만나다든지, 교회에 간 것이 발각되면 북한에서 간첩죄에 해당한다.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 지역에 이런 간첩질하는 이들을 북한 정부가 잡아내 일망

타진해 잡은 적이 있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북한에 3~4년 전에 있었으니 최소 2012년부터 2014년 전후에도 북한에서는 지하 성도들이 색출 당하고 있었고, (이들이) 일망타진이 됐다든지 또는 잡혀서 북한 정부의 교육자료로 활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NPNEWS]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4:9~10)

기도 | 북한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위협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묵묵히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경험케 하셔서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께로 나와 구원을 얻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74)

교회에 실망하셨나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져다주신 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목사도, 장로도, 교회엔 나쁜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이나 잘 믿으라고 하세요”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죄송한 이유는 당신 말대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해 불편한 마음을 드린 것이고, 감사한 것은 당신의 꾸지람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참회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분개하고 계신다면 더욱 분노하고 통탄해하실 분이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장에라도 그 목사, 장로들을 썩 쓸어 버려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에 대해 눈감고 모른 척하고 계신 중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은 인간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고통은 더 큼니다.

하나님은 “너를 낳은 어미가 혹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아들을 여전히 품는 어미의 사랑을 욕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어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황히 버리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3:15

일러스트=김경선

존재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고 인간을 택하셨습니다.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목사, 장로뿐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도 참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가 그분의

완전하신 거룩 앞에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세요.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한국 교회에 ‘중국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 동참 요청 2면

기획 | 현장리포터 20대 초반 선교사, 2년의 단기선교 이후 장기선교사로 헌신 3면

인터뷰 | 김중훈-김희영 선교사 부부 “절망의 끝에서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도 나를 포기했던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교회에 '중국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 동참 요청

중국 정부, 예배당에 국기·지도자 사진 부착 명령... 거부시 체제 전복 혐의로 기소



▶ 2차 대전 당시 독일교회(왼쪽)와 2019년 현재 중국 정부가 예배당에 게시를 요구한 중국 국기와 지도자의 사진이 걸린 모습(출처: VOM)

공산주의를 근간으로 한 전체주의 국가를 목표로 최근 지하교회를 급속하고 심계명 수정과 성경을 공산주의 이론에 맞게 재번역하는 등 종교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모아 달라고 한국순교자의소리(VOM)가 최근 요청했다.

VOM 대표 현숙 폴리 목사는 지난해 말 구속된 전직 법학 교수가 자 이른비언약교회를 담임한 왕이 목사가 기초하고 중국 목회자들이 서명한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

서'에 한국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가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중국 목회자 439명이 공동 서명한 '목사들의 공동성명: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에 한국 교회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연대 서명에 참여해달라는 것이다. 참여 사이트는 chinadeclaration.com이다.

현숙 폴리 대표는 "지금 문화대혁명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중국 정부의 최근 종교정책에 대해 전 세계 교회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중국 교회와 연대하고 신학적으로 중국 교회를

지지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은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OM 최고경영자 에릭 폴리 목사는 "2차 대전 무렵 히틀러가 국기와 국가지도자 사진을 예배당에 거는 나치화를 시도했듯이 시진핑 역시 중국 국기와 국가 지도자 사진을 예배당에 거는 사람들에게 종교 자유를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은 중국 정부에 대해 세계 교회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중국은 지금 공산당식 성경 번역을 반대하는 성도들을 체제 전복 혐의로 기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이미 독일과 러시아 공산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경험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독교 신앙 선언서는 ▶중국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시라는 진리를 믿으며 ▶중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걷기를 열망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앞선 세대 성도를 본받고 ▶중국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국 당국자들에게 복종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중국의 모든 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임을 고백한다고 밝히고 있다.

[GNPNEWS]

'진화론 반대' 서명한 과학자 1000명 돌파

다윈의 이론이 생명체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며 이러한 주장의 결론인 진화론에 반대한다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에포크 타임즈는 13일 '다윈의 이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A Scientific Dissent From Darwinism)라는 성명서에 서명한 과학자들의 수가 2019년 2월 현재 10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지적설계를 연구하는 미국의 비영리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Discovery Institute)가 지난 2001년에 성명서를 만들었으며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 러시아, 헝가리 및 체코 국립 아카데미, 예일, 프린스턴, 스탠



▶ 다윈(왼쪽)의 진화론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과학자들(오른쪽)(출처: Discovery Institute 유튜브 영상 캡처)

퍼드, MIT, UC 버클리, UCLA 등 대학의 과학자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 성명서는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도태로 복잡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설명은 매우 의심스러우며, 다윈의 이론에 대한 증거들은

매우 주의 깊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 서명하려면 생물학, 화학, 수학, 공학, 컴퓨터 과학, 자연 과학, 의학 등 관련 학문 박사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GNPNEWS]

2019년 BLTS 특별강좌

성경언어훈련학교(BLTS)가 '김명호, 유영기 교수의 듀엣 성경강좌(이하 듀엣강좌)'를 오는 3월 25일(월)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선한목자교회에서 개최한다. 오랜기간 성경을 연구해온 신약의 유영

기 교수와 구약의 김명호 교수가 성경 진리의 깊은 물을 퍼 올려 잔잔한 영혼에 파장을 일으키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금으로 운영

되며 단, 등록비는 1000원(입금 후 전화 필).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010-6613-7647, 010-5190-1228, 이메일 gpinstitute@naver.com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2.4 ~ 2.16)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시리아 난민수용소서 열악한 환경에 주로 어린이 45명 숨져

내전 상태에 있는 시리아 동북부의 난민수용소에서 텐트 수십 곳이 홍수로 침수하고 혹독한 날씨 때문에 어린이를 중심으로 45명이 사망했다고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SOHR)가 9일 밝혔다.

아무것도 못한 채 고난을 겪는 어린이들의 깨져버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해주시고 자녀를 잃은 부모의 증오가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본심 앞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서아프리카 기니서 금광 산사태로 최소 17명 사망

아프리카 서부 기니의 북동부 도시 시기리로부터 약 35km 떨어진 금광에서 지난 3일 오후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7명이 숨졌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기니에서는 수천 명이 불법 광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채굴하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이 내동댕이쳐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니에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토록 찾아 헤매었던 영원한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된 것임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 독재법... '성적 지향' 조항 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난 11일 조경태 의원실 주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공동주관한 국가인권정책 토론회에서 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조항의 삭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님, 왜곡된 시각으로 인권에 대한 해석을 하고, 법률까지 만들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NYT "북한의 인기 설 명절 선물은 필로폰"

북한의 설 명절 선물로 마약류 각성제의 일종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인기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필로폰 생산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주님, 겉으로는 핵무기를 내세우며 힘을 자랑하지만 정작 속은 굶아있는 북한의 실상을 봅니다. 필로폰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푸사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2월 25일 ~ 3월 9일

- 2월 25일~3월 2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김**)010-5057-2149, ▶경기 부천 / 부천산동교회(박**)010-9527-2468, 2.24(12시)-2.25(24시)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임**)010-2276-8221, 2.25~26(06-20시) ▶인천 서구 / 사랑교회(엄**)010-5657-9191, 2.25~3.1(14-19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2.26~3.1(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2.27(06시)~2.28(06시)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2.28(22~24시) ▶부산 금정 / 모리아선교회(김**)010-6382-1442, 3.1(06~18시) ▶강원 원주 / 남원주교회(강**)010-8271-0133, 3.1(20~24시) ▶광주 동구 / 삶이예배인교회(진**)010-4265-0209, 3.1(12시)~3.2(12시) ▶대구 중구 / 대구서현교회(권**)010-9275-7843, 3.2(06-12시)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강**)010-3751-0493, 그 외 15교회 진행 중.

- 3월 4일~3월 9일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이**)010-3737-3629,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3.4(0-24시) ▶경남 울산 / 울산태화교회(박**)010-9326-7767, 3.4~5, 7~9(19-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3.5(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3.5~6(10-13시) ▶경기 수원 / 칠보교회(박**)010-6818-2949, 3.8(0-24시) ▶경북 영덕 / 다사랑교회(김**)010-5507-0198, 3.8(0시-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3.8(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구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3.8(19-22시) ▶광주 남구 / 십자가복음교회(김**)010-9883-2347, 그 외 12교회 진행 중.

* 자세한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20대 초반 선교사, 2년의 단기선교 이후 장기선교사로 헌신



헤브론원형학교, 용감한 정예병 선교보고대회... 4명 장기선교사로 재 파송

“단기선교사로 2년간 선교 현장에서 지낸 저의 ‘용감한 정예병’의 시간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 가운데 선교사를 꿈꾸며 입학해 졸업과 동시에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방식으로 차세대 선교사를 양성해온 헤브론원형학교 졸업생의 말이다.

2013년에 설립돼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해온 이 학교는 졸업과 함께 2년간 선교현장의 선교사에게 위탁되어 ‘용감한 정예병’(이하 용정)이란 이름의 단기선교사로 선교 현장을 섬기도록 하고 있다.

이제 20대 초반인데 너무 이르지 않을까? 뭘 좀 갖춰 나가야지 너무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변의 우려와 염려스러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졸업생은 올해로 4기를 배출하며 졸업생 대부분이 장기선교사로 헌신,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초 서산 헤브론원형학교에서 열린 ‘용감한 정예병’ 선교보고대회는 이 같은 우려가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저는 지난 2년간 생활방식, 습관, 성격, 익숙함, 관계, 언어 등등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이 선포되고 그 안에서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기 절망을 경험한 깊이 있는 고백들이 이어지며, 참석한 가족과 지인들, 파송교회 관계자 200여명은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동하며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냈다.

차세대 선교자원을 양육하라

8명의 3기 졸업생들은 원형학교를 졸업한 이후 2년 동안 I국, L국, T국에서 단기 선교사로서 지내왔다. 이들은 현지 대학에 입학해 믿음으로 공부할 뿐 아니라 캠퍼스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허

락되는 만큼 복음을 전했다.

선교사로의 첫발을 내디딘 이들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겠다든지 좋은 관계, 성숙해지는 영성 등을 기대하고 출발한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통해 주님은 그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신다.

한 형제 선교사는 먼저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 마음이 어려웠지만 주님께로는 나아가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면서 쾌락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음란과 미디어에 나를 내주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다. 이것은 부르심을 저버리겠다는 것이었다. 나의 반역성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동시에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않는 나’라는 ‘자기의’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복음을 이론적으로 배웠지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살 수 없음을 형제는 절감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이런 놈이구나. 완전한 절망에 놓인 순간 왜 하나님이 죄의 근원인 나를 열방의 근원이라 칭하셨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주님은 부르신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열방의 근원이라며 그 자리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하셨다. 그때 알았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내가 열방의 근원이라는 유일한 근거였다. 열방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교지에 도착한 이들은 때로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 다른 형제 선교사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실력으로 영문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하다가 진지하게 방언을 구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캠퍼스 선교사로 현장을 섬기다

“캠퍼스 선교사로 친구들을 만나 사귀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무언가를 나누는 건 둘째 치고 평소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이 갑갑하고 싫었다. 결국 난 공부도 안되고 영성도 안되고 선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나를 왜 불러주셨냐?”는 질문에 ‘사랑해서’라는 대답으로 주님은 나를 일으켜주셨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내 마음까지 나누게 되었다”

한편 어려움을 만날 때 선교지 현장에서 용정을 돌보고 함께 동역하는 가디언(Guardian) 선교사들의 기도와 사랑이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가디언 선교사들은 이들과 함께 예배, 생활, 사역 등을 조언하며 초보 선교사의 멘토 역할을 감당한다.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스스로가 훨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느 때 이 학교의 캐치 프레이즈 중 하나인 ‘순종의 전문가’라고 불리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선교 보고를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것조차 부끄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존재적 행복을 찾아간다. L국에서 1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지내다 2년째가 되었을 때 주님이 저를 바짝 앞드러지게 하셨다고 한 자매 선교사는 말한다.

“L국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시간과 개인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함께 하던 지체가 떠나고 혼자 팀을 이루어 그 자리에 남아야하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 어느덧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삶에서 지속되자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환경에 적응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성격적 특성이 믿음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 의견을 말하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안 깊은 곳까지 탈탈 털듯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는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주셨다. 순간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었다. 지금의 룸메이트가 나를 표현할 때 ‘생기 하나 없이 축 쳐져서 머리 위에 오기 직전의 먹구름을 하나 얹고 살았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주님이 생기가 있고 힘 있게 살아가게 하신다”

선교지 전방에서 이런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들의 아론과 훌이 되어 기도하는 파송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8명의 용정을 위해 중보하며 섬겨온 파송교회는 모두 13개다. 이 교회들은 매월 선교사들의 기도편지를 받아들이고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함께 공감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재정도 함께 감당한다. 그러나 파송교회 중에는 성도 수가 몇 명밖에 없는 교회도 여럿 있다. 이들에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실제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 그래서 이날 원형학교는 용정들을 섬긴 파송교회와 가디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를 받은 한 교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후원했던 선교사가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 과정을 마치고 다시 장기 선교사로 나아가기로 결정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가디언 선교사와 파송교회 섬김

용정 선교사 파송본부에 따르면, 이번 수료생 중 4명은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일부는 입대를 준비하거나 또 다른 신앙 훈련과 기독교의 교사 등 또 다른 선교적 삶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밟게 된다.

그중 T국으로 파송 받은 한 형제 선교사는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무엇보다 주님이 선교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고 고백했다.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기에 주님께 내 삶을 바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일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다. 이 땅을 뒤엎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편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안팎으로 어려움이 밀려왔다. 내부적으로는 관계의 어려움, 외부적으로는 아프신 어머니와 선교지에서 박해를 받는 형의 소식과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려웠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때 나를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셨다.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선교하는 것에 있어 후회는 없었다. 주님의 확실한 부르심이었고 선교하는 것이 너무 기뻐다. 나는 한 가지 꿈이 생겼다. 내 일평생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주님 만나는 것이다. 현지인들을 사랑하게 됐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 선교의 대상인 동시에 선교의 동역자로 T국이 좋아졌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장기 선교사의 걸음을 시작한다”

2년 동안 이들을 섬겨온 선교사 파송본부 한 관계자는 “선교사로서의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제자들이 자랑스러웠고, 지금은 미약해보이지만 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송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5개국에 13명의 정예병이 열방을 섬기기 위해 2월 중으로 모두 출국한다. [GNPNEWS]



▶ 선교지 현장에서 배운 찬양으로 울동을 하는 두 용감한 정예병의 모습(왼)과 이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파송교회와 가족들의 모습

기획 | 창조 이야기(10)

자기력이 감소하는 지구 나이, 2만 5000년 이상은 불가능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이 진화를 이용해서 창조할 수 없었을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다. 굳이 진화를 이용해서 창조해야 하는 하나님은 잔인하고 낭비적이고 지혜가 없는 분이므로 그런 하나님에게 기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시편기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 8:3~4)라고 했다.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불으니'(시 39:3)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읊조리다'는 '생각하다'라는 뜻이다.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은 이 구절에서 두 번 사용하고 있다.

영어는 상당히 흥미로운 언어다. 'theist(유신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단어 앞에 'a'를 붙이면 'atheist(무신론자)'가 된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muse'는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amuse'는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 된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려고 돈을 내고 가는 공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바로 'amusement park(놀이공원)'이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장소'를 즐거운 장소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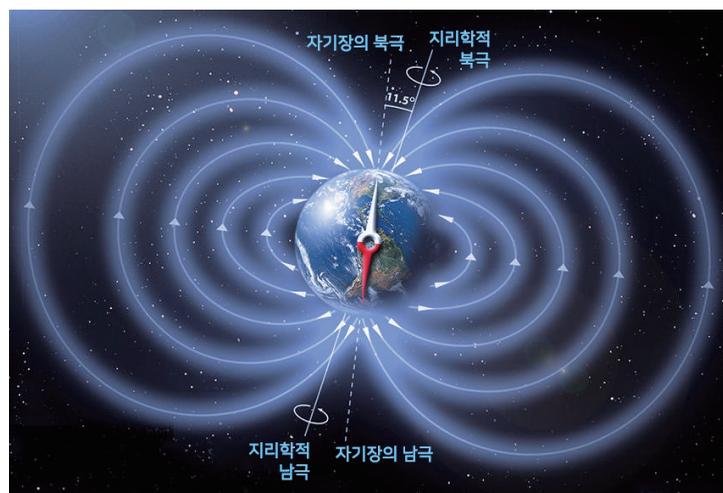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별로 깊은 인상을 받지 않는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침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만약 벽이 스포츠 스타의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목상하도록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사고력은 한 뼉 정도의 깊이밖에 되지 않는다. 아이는 '와, 그 선수가 공을 던져 골인 되었네' 정도를 알 수 있을 테지만 천년 후에 그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된다. 우리는 불과 5년 전 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 것을 목

상해야 한다.

영원히 지속될 것을 목상하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욥 12:8) 지구는 커다란 자석과 같다. 자석은 서서히 힘을 잃는 특성이 있다. 지구라는 자석은 지난 150년 동안 10%의 힘을 잃었다. 그렇다면 지구의 자기력이 옛날에는 더 강력했다는 말이 되므로 지구가 2만 5000년 이상이 될 수는 없다. 즉, 지구의 자기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구의 나이는 2만 5000년 미만이라는 제한을 가진다. 그 말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매머드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았다. 매머드 다리 아랫부분은 1만 5000년으로, 피부는 2만 1000년으로 측정됐다. 또한 매머드의 한쪽 부분은 2만 9000년으로, 다른 부분은 4만 4000년으로 측정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매머드는 무려 3만년에 걸쳐 오랫동안 분만됐다는 말이다.

교과서는 '자기장이 약해지는 것은 반전 때문이다. 이것은 반전 패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바다 밑 부분의 자



▶ 거대한 자석과도 같은 지구는 북극이 N극, 남극이 S극과 같다. 위의 그림은 지구에 의해 생성된 보이지 않는 자기장 선을 도식화했다. 이 자기장은 지구에 도달하는 우주방사선을 막아 생명이 살 수 있게 한다(출처: Peter Reid, University of Edinburgh)

기장에는 자기장 반전이 없다. 이것은 '판게아' 이론의 일부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모든 대륙들이 다 들어맞았다'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40% 가까이 축소한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전체를 빼버렸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멕시코,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벨리즈, 니카라과는 어디 갔는가? 또 그들은 유치원 아이들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말

하지 않는다. 바다에서 물을 다 제거하면 그 밑에는 땅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호빈드씨,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던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그들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무슨 말이죠? 대륙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 말은 지금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냥 낮은 부분에 물이 차 있을 뿐인데, '옛날'에는 연결되어 있었다니요. 지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멍청한 이론인가?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군선교, 제 생활이 그들이 읽을 성경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에서 훈련을 받다가 군대라는 또 다른 선교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면서 훈련병으로서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동체 훈련을 받아서인지 훈련소 적응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어서 그랬는지 제식과 큰 목소리, 조교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에서 모범이 되어 많은 칭찬과 상점을 받았습니

다. 또한 늘 막사로 돌아오면 성경을 펼쳐놓고 있는 제 모습은 다른 동기들의 호기심을 유발했습니다. 동기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제 믿음의 근거에 대해, 믿음과 신앙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그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향한 갈망과 의문이 있

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의문에 답을 줄 수 없었지만 진리를 만난 사람의 간증을 나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기 중 한 명은 제게 매일같이 복음과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진리로 교제가 이어진 그곳에서의 시간은 정말 특별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꿈꾸듯 지나간 훈련소의 생활이 끝나고 자대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치 받은 곳은 대한민국 육군 부대 중에 가장 열악한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이등병으로서 저지룰 수 있을 만한 갖가지 실수들이 드러났고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실수들과 제가 먹는 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실의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완벽한 군 생활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 이전에 내무반으로 불리던 군 생활관 모습(출처: insight.co.kr 캡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 영혼의 간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군인, 더 나은 군 생활을 내려놓고 주어진 나날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즈음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같이 성경을 펴고 묵상 노트를 끄적이는 저를 본 동기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손을 모으고 중얼거리는 절 보던 선임들이, 제게 질문해오곤 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등 신병교육대에서보다 한층 더 깊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말들이 오갔지만 변증보다 진실한 순종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제 생활이 그들이 읽을 성경이 될 것입니다.

선임과 후임과의 관계에서, 군대의 체계에서, 군대에서 만나게 된 다양한 인생들의 이야기 속에서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불현듯 찾아오는 내면 여행과 고민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그랬듯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쉽게 집중할 수 없고 잠잠해질 수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같은 편에 서서 믿음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하고 싶습니다. 제겐 그것이 한 모금 생수가 됩니다. [GNPNEWS]

김아곱(○○부대)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절망의 끝에서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단기선교를 나갔던 L 지역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 나이는 같지만 서로가 너무 달라 호감조차 없던 사이였다. 각자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장기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던 때,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위치에서 선교와 멀어져갔다. 목마름 가운데 있던 그들을 생수 같은 복음으로 깨워 이제는 한 몸을 이뤄 L 지역에 다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선교이야기를 김종훈, 김희영 선교사 부부를 통해 들어봤다.

- 그동안 많은 훈련과정을 거치고 선교지로 나가시는군요. 혹시 모태 신앙이신가요?

김희영(이하 영):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빗을 많이 지고 집을 나가셨어요.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교회에 다니던 어머니가 늘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은 가족들은 그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기독교에 반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에 절대 교회에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에 다녔어요. 여전히 기독교를 비판했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어요. 뭐든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 선생님이 신앙부 임원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장학금을 준다는 말에 한다고 했죠. 그냥 웃고 떠들면서 열심히 생활하다 어느 날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성가대석 커튼을 떼고 있었는데 키가 크다는 이유로 그 마무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래 청소년들과 이야기가 시작됐고 청소년기도회에 초대받게 됐어요. 매일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깊게 와 닿았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나를 버리지 않은 이 사랑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 선교사님의 순교 영상을 보았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지 몰라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신학교를 소개해주셨어요. 바로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부모도 버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요”

-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학까지 하게 됐군요. 주님의 은혜네요. 신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영: “그때까지 제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없

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신학교에 들어가 이성 교제를 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난 신학도, 선교도 못하겠다고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이 절 만나주셨어요. 이미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나를 신부로 삼으셨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말씀 앞에서 회복이 된 후 어떻게든 이 사랑을 갚아보고 싶어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세미나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저의 삶과 고백은 달랐어요. 사랑보다는 미움이 빠르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인정과 평판에 널을 뛰었어요. 신학교에서 계속 무언가를 배우지만 기쁘지 않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신대원 다니면서 이런 고민에 빠진 저를 보던 한 선배가 ‘복음학교’를 추천했어요. 인터넷으로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선교훈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훈련에 참여했어요. 그동안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곳에서 말씀대로 사는 증인들을 만났어요. 성령이면 가능하구나. 주님이면 가능하다는 메시지들이 강력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 주님이면 가능하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영: “그건 복음학교에 참석한 이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먼저 복음학교에서 제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게 됐어요.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기도조차 나를 위한 기도였더군요. 내 마음이 동할 때만 하는 기도였죠. 금식도,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오직 내 만족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복음의 진리 앞에서 보게 됐어요. 모든 것이 내 의가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라는 질문을 갖게 됐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이 제게 큰 자유를 안겨줬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내 연약함을 알까봐 언제나 두려워했어요”

- 큰 자유를 얻은 이후의 삶이 궁



지금도 목마른 김종훈·김희영 선교사 부부

금하네요.

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모두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신대원을 휴학하고 6개월 동안 합숙신앙훈련에 참여했어요. 훈련기간 내내 죄와 씨름했어요. 십자가에서 내 옛 생명이 죽었다고 하셨는데 계속 살았나, 죽었나 헷갈렸어요. 끊임없이 죄 된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그때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이면 너의 죽음도 사실이라고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주셨어요.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나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었어요. 주님이 제 주인이시니까요. 그때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선교완성의 명령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에 8:17) 조서가 이른 곳마다 생명이 살게 되는 것처럼, 제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알려주지만 하면 살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겠다고 생각했어요. 난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었던 사람이 열방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L지역으로 1년 단기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그 땅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기독교를 믿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현지인과 한인들을 섬겼어요. 그곳에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 곳도 있었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는 저와 성향이 너무 달라 별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 1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단기선교로 순종의 첫 걸음을 떼다

- 김종훈 선교사님은 어떻게 L지역에 가게 되셨나요?

김종훈(이하 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를 하다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고 미용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미용실을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낯선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용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군대 가기 전에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뉴질랜드에 보내주셨어요. 그곳에 미용실하는 삼촌이 계셨거든요. 본의 아니게 거기서도 일을 하게 됐어요. 삼촌 집에 홈스테이하던 형이 있었는데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저를 보더니 하루는 ‘마음을 다스리는 학교에 가지 않을래?’라고 묻더군요. 알고 보니 그곳이 교회였어요. 처음 교회에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뉴질랜드도 구경하며 여행을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미용실은 안 나가게 됐죠. 그곳에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며 새해 약속의 말씀도 받게 됐어요. 또 그곳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죄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건져달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막혀버렸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

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주셨구나. 그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돌아와 갈 수 있는 모든 예배에 참여했어요”

-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떠셨나요?

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안 꾸미고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정장을 입고 머리 손질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의 신앙이 단단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군대 제대 이후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단기선교를 가게 됐어요. 어느 날 세족식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제 직임은 물을 나르는 것이었죠. 리더 형들은 그들의 발을 닦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저도 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자리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을 나르다가 말고 1층 기둥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구해주신 게 맞다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미용사의 삶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 나를 드리겠어요. 내 삶을 써주세요’ 선교 현장을 떠나면서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 돌아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오매불망 캄보디아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훈련이 거의 끝날 무렵 제가 가야 할 나라가 갑자기 L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동안 주님이 불러주시던 어디든 간다고 했지만 L국에 도착하고서도 한 주 동안은 힘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L지역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더군요”

미용사가 아닌 선교사의 삶을 선택하다

-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것 같네요. L지역에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훈: “비즈니스를 통해 다른 여러 나라 출신 기독교인을 만나 함께 지냈어요. 그곳에서 각국 언어로 예배를 드리기가 시작했어요. 현지 청년들도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핍박도 있었어요. 불시에 경찰이 들이닥쳐 여권을 빼앗아가서 쫓겨날 뻔도 했어요. 잠깐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예배모임이 지속됐어요. 그 무렵 희영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기타를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만났지만 당시에는 동료 선교사 이상도, 이화도 아니었어요” [GNPNEWS]

Y.K. <온라인 신문(www.gnpnew.org)에서 계속>



▶ 탄자니아에서 미용으로 지체들을 섬겼던 김종훈 선교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언약성취의 복음(2)

나도 나를 포기했던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일러스트=노주나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언약하기 그지없다. 늘 흔들리고 갈등하는 아브라함을 불러 주님이 언약하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해 모든 열방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셨다. 하나님은 베드로 또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사람 낚는 어부’ 그를 부르셨다. 나의 언약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부르셨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쓰러질지, 넘어질지도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내 평생에 처음 겪은 그 절망도 주님은 알고 계셨다. 언제 내가 주저앉을지, 비참하게 어둠 가운데 있을지 아셨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한 헛된 기대를 갖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고야 마신다. 다윗은 이 지식이 너무 신비하고 기이하여 도무지 도달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시 139:6)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은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다.(시 139:7~12) 우리는 피

조세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지성이 탐을 쌓고 하늘 높은 곳에 거한다 해도, 음부 저 깊은 곳에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은 그 어디에나 계신다. 고난의 깊은 골짜기도, 의지가 바닥이 나고 한계에 부딪힌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신다.

주님은 우리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다. 흑암이 깊은 밤이라도 주님은 흑암이 없는 대낮처럼 나를 보고 계신다. 감히 피조물인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야!”(시 139:7)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

‘이곳만큼은 주님이 계시지 않겠지’ 했던 그곳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가장 비참한 좌악의 자리, 교만의 자리, 열등감으로 낮아진 자리, 심지어 나도 나를 포기했던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신비하고 경이롭다. 세포 하나하나의 설계는 우주와도 같다. 이런 피조세계를 알아가는 것도 놀라운데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일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디자인하시고 단 하나의 오차 없이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변형되고 취소할 때가 대부분인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며 전지하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갈 뿐이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더욱 깨달아 가며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다. (2017년 4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히브리어로 만나는 복음 (30)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내게 복음이 아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가장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새벽을 깨워 나아오는 것이다.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세상에 살면서 가야 할 곳이 많고 해야 할 것이 많은데,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사모하여 거룩한 성소로 달려와 무릎을 꿇은 자리, 다름 아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사랑하는 주님을 독대하며 엎드렸다는 것은 천사가 놀랄 일이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제물)로 드릴지니라”라고 명했는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θυσια)로 드리기 위해 나왔기 때문이다.

예배는 내가 죽으려고 나온 자리

‘제사’, ‘예배’란 말은 헬라어로 ‘투시아’(θυσια)다. 어원 ‘투’(θυ)가 들어가면 ‘타다, 태우다’(burn), 태우면 냄새가 나니, ‘냄새나다’(smell)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헬라어 동사, ‘튀오’(θυω)는 ‘죽이다, 희생 제물로 드리다’(kill, sacrific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예배의 자리는 ‘그냥 왔

다가 예배 보고 그냥 가는, 도장 찍고 가는 하나의 의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이다.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이다. 매일, 매주마다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바로 죽으려고 나온 것이다. 모두가 살려고 할 판에 죽으려고 나왔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사도 바울이 문체 많고 잘난 고린도 교회에 고백한 유명한 말을 보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καθ’ ἡμέραν ἀποθνήσκω, I die daily)”(고전 15:31)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카프 헤메란 아포뜨네스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가장 정확한 예배의 정의다. 예배는 매주 드리는데, 나는 믿음이다, 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갈수록 흥해지고,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하는 사람, 신실함이 없는 사람,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사람은, 나의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 건 보나 마나 가짜다.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



거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눅 9:23), 나의 제자가 되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도의 클라이막스(climax)는 나의 장렬한 죽음이다. 나에 대해서는 공중에서 분해를 시키는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눅 9:24) 눅 9장 23절이 24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신자는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장렬한 죽음으로 말한다. 내가 죽어야 그래야 ‘쏘조’(σώζω, save, 구원하다) 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쏘조)” 그래야 그때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리라, 즉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결론이다. 복음은 단순하다.

나를 이렇게 장엄하게 죽이는 것이 복음인데 내가 죽기는커녕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죄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편지

다양한 주제로 풀어낸 복음의 진리를 드라마로 듣는다

유튜브에서 보고
카톡 페이스북으로 공유하면
전 세계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음드라마,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검색하세요
#복음과기도미디어 #복음드라마 #거리에서만난하나님

YouTube **복음드라마 복음에세이** 검색

악에 질편하게 앉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의 실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복음으로는 안된다고,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안 살아진다고.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다. 성경은 말한다. 그런 복음은 없다고!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 복음이 아니다. 그가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위에서 오는 그 복음(τὸ ἐὐαγγέλιον)에 부딪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음을 만나고 실제 된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GNPNEWS]

김명호 교수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소장)



“찬양도 열정적으로, 가요도 열정적인 나를 바라보다 문득...”

10대 청소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 어떤 사고의 변화를 경험할까? 기독교학교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학습하며 경험한 내면의 변화를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내용 요약문이다. <편집자>

나는 거리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대중음악과 서정적이고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찬양을 들을 때면,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찬양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궁금했다.

음악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음과 소음을 소재로 하여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해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다. 사상과 감정은 자신의 세계관이다.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노래는 각자의 세계관이 담겨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좋은 멜로디와 박자에 자기 생각을 넣어 대중들이 감기에 걸리듯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중음악의 여러 장르 중 팝(POP)은 파퓰러(Popular)의 줄임말로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노래를 말한다. 특히 팝에 속한 가요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세대의 문화와 관습들이 반영된다.

힙합 음악의 가사를 소재별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자신감에 관한 가사가 26%, 성적 판타지가 15%, 돈과 부에 관한 욕망이 15%를 차지했다. 흥미로운 리듬과 멜로디를 통해 대중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아이돌 그룹의 리더는 대중들에게 자신이 누구든지 자기만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찾으라고 말한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다. 지독한 자기 사랑을 추구하게 하는 세상 문화와 생각은 하나님의 마



일러스트=이예민

음에서 멀어지게 한다.

음악의 목적은 지체와 기쁨을 나누고 주님을 높이는 것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해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기독교 음악인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은 가사에 기독교의 믿음을 직·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현대 대중음악의 한 장르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지만, 예배 음악이 아닌 종교적 메시지를 담은 대중음악이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찬양이라며 발표하는 CCM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부르기에 무리가 있다. 전자음이 들어가 '디제잉 워십'이라는 장르는 사실 세상 클럽 음악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원래 음악이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일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엡 5:19) 음악은 본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지체가 서로 화답하라는 말씀은 ‘마음을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다. 주님을 노래하며, 지체 간의 기쁨을 나누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음악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서도 열정적으로 가요를 부르는 모습이 내게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시큰둥하지만, 가요에는 흥이 나는 나를 보며 낙심되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인류 최초의 노래, 죄인 라멕의 살인가와 요한계시록에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생각나게 하셨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 7:9~10) 내 시선은 세상 죄에 머물러 있었으나, 하나님의 결론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이 일이 믿어지는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보고 싶다. 언제까지 세상의 가치에 죽고 살텐가? 그 날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자. [GNPNEWS]

배성진(19)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부흥을 위하여

김정은, 9년간 고위층 간부와 가족 420명 처형

이 시대 가장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 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방북시 묵었던 북한의 백화원초대소소장이 지난해 12월 평양거리에서 공개 처형됐다고 중앙일보 등 국내 언론이 2월 12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의 검열과정에서 소장 집에서 미화 300만 달러(약 33억원)가 발견되는 등 비리가 적발됐다. 평양의 한 거리에서 이뤄진 공개 처형엔 호위사령부와 군 관계자들, 조선노동당과 내각의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은 이처럼 비리가 드러날 경우, 형벌로 공개처형이라는



▶ 북한이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공개처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같은 종류의 고사총(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캡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관계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처럼 철권통치를 벌이고 있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 일어난 고위층에 대한 처형은 얼마나 발생했을까?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은 김정은 집권 전후로 지난 9년간 처형한 고위층 간부와 가족이 42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발표했다. 이 방송은 북조선 인민통신이란 코너를 통해, 탈북자단체인 북한전략센터가 다른 인권단체들과 협력해 북한의 현직 간부 및 고위 탈북자, 일반 탈북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겉으로는 평화 운운, 군기 잡는 데는 피바람

처형 대상자로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넷째 부인 김옥, 고모부 장성택, 암살된 이복 형 김정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 내각부총리 김용진 등 김정은의 최측근 참모들과 핵심 세력 간부들이다. 이들은 잔인하게 처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택과 그 일파에 대한 숙청 처형이 세 차례 걸쳐 처리되고 그 무렵에 또 다른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단 한 번도 숙청돼 처형된 적이



▶ 금수산태양궁에서 북한 최고위층들과 함께 김일성 출생 기념일에 참배하는 김정은 위원장(출처: thedrive.com 캡처)

없는 당 조직지도부 간부부에 핵심 부부장 김근섭이 그 인맥들과 함께 집단 처형된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김원홍 전 국가보위성 부상이 주도한 사건이다.

방송에 따르면, 김원홍은 황해도 지역에서 보위성 첩보라인을 통해 황해도당 간부들이 유곽을 만들어 놓고 음란한 행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중 김근섭 당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 이 사실을 김정은에게 보고했다.

중앙당, 지방당의 책임비서들을 임명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김근섭은 이러한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인맥들을 황해도 지역의 당 비서로 대거 임명

해 황해도로 자기만의 왕국으로 만들었다는 죄를 뒤집어쓰게 된다. 황해도 지역의 주요 도시와 군의 책임비서들이 모두 김근섭을 추종하는 종파집단이라는 죄명으로 처형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고위층이 이같이 처형되는 상황이라면 평범한 주민들이나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 또는 종교를 이유로 적발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질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겉으로는 평화를 운운하는 북한 정권이 군기를 잡기 위해 피바람을 벌이며, 지도자 우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종교인에 대한 무참한 고문과 처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가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GNPNEWS]

복음의 능력

착한 사람이 되려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믿기 원하신다. 구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미완성의 덮음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다. 사람의 믿음을 구원의 바탕에 두는 가르침은 잘못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복음은 구속의 절대성에 기초한다.

구속의 위대함은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죄를 다루는데 있다. 사회의 문제아들을 구출하는 일도 매우 귀중한 일이지만 그것이 기독교가 감당해야 할 전부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는 것이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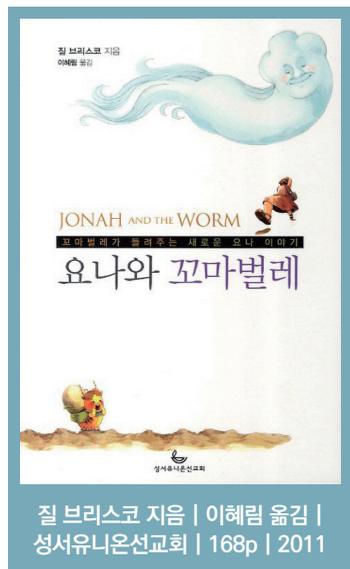
<제자도(2012), 오스왈드 챔버스>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질 브리스코 <요나와 꼬마벌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질 브리스코 지음 | 이해림 옮김 | 성서유니온선교회 | 168p | 2011

를 니스웨로 이끄신다. 그 시간 꼬마벌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이별을 경험한다. 벌레는 부르심을 따라나선 길에서 외로움과 종달새의 공격에 두려운 시간을 지나기도 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으며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배우게 된다. 순종의 모험 끝에 꼬마벌레도 니스웨에 도착한다. 마침내 요나와 꼬마벌레는 니스웨에서 만난다. 그곳은 꼬마벌레의 순종의 자리요, 역지로 외친 요나의 외침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니스웨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심술 난 요나가 만나는 자리였다. 요나는 시원한 박넝쿨 아래에서 니스웨 땅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때 벌레에게 ‘그 박넝쿨을 다 먹어 버려라’고 명령하

셨다. ‘이렇게 많은 것들요? 제가요? 혼자서요? 안 먹어본 건데요?’ 벌레는 이런 생각으로 계산해보고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지나가긴 했지만 믿음으로 눈을 꼭 감고 한입 깨물어 먹었다. 그리고 모두 먹어치웠다. 집을 떠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온 벌레는 마땅히 순종의 길을 선택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벌레가 먹어치운 박넝쿨을 통해 니스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멋진 순종의 모험을 끝낸 꼬마벌레는 그 후 멋진 나비가 되면서 이야기가 마쳐진다. 재미있게 책을 읽으며 꼬마벌레의 모험과 여정 구석구석에 단순하지만 보배로운 진리를 발견했다. 책에 표현된 그대로를 조금 옮겨

본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고 있을 때는 빛이 난다’ ‘순종이란 것은 이 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은 모험이다’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것은 네 자유란다. 내가 말한 일을 너에게 역지로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지! 마음에서 ‘아멘!’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 진리들에 믿음으로 나를 드리기를 결단하게 되었다. 기쁘게 나의 순종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주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실 것이다. 거친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더욱 사모되었다. 역지로 순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순종을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아닌 꼬마벌레처럼 단순한 한 걸음을 걷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주님은 올해 초, 사역지를 옮겨주셨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긴장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단순해진다. 이곳에서도, 새로운 일들 앞에서도 내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순종의 모험이 기대된다. 주님은 요나에게도, 이야기 속 꼬마벌레에게도,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참 선하고 좋으신 분이시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내 삶을 주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실 주님께 나의 순종을 드리며 나아간다. 할렐루야. [GNPNEWS]

강영숙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도끼와 하나되어 그대로 장작 위에 떨어뜨리는 거야”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할 때의 일이다. 이제 막 선교사로 걸음마부터 배우고 있는 나에게 가장 많이 들려지는 소리는 “긴장하지 마” “너무 잘하려고 하지마” “사람 두려워하는 것은 죄야” 등의 이야기들이었다. 잔뜩 긴장해서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 내 모습은 주변 사람들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루는 공동체 행사 준비를 위해 장작이 필요했다. 다른 지체들과 장작을 패기 위해 도끼를 들고 장작터미 앞에 모였다. 선배 선교사의 시원시원한 도끼질로 장작 패기가 시작됐다.

나는 30년 넘게 살면서 제대로 된 도끼질을 해 본 적이 없었다. 옆에서 무시무시한 도끼질을 지켜볼 때 은근히 겁도 났지만 시켜만 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게도 기회가 왔다. 약간 겁도 나고 불안했지만 태연한 척했다. ‘이 정도 쪼아야. 나도 잘할 수 있어’ 힘을 잔뜩 주고 장작을 향해 도끼를 내리찍었는데 도끼가 장작이 아니라 내 왼쪽 정강이를 ‘획’하고 지나갔다.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나서 선배 선교사는 내게 다시 도끼질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어깨에 힘을 빼. 도끼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힘만 있으면 돼. 네가 도끼를 컨트롤



를 하려고 하지 마. 주님께 너를 전부로 드린 것처럼 도끼와 하나가 돼서 그대로 장작 위에 떨어뜨리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내 모습이 보였다. 초보 선교사로 불필요한 긴장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도끼를 쥐고 잔뜩 힘을 주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열심과 최선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께 전부 드리는 믿음을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믿음의 도끼질을 하며 주님께 나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한 걸음씩 배워나갔다. 시간이 흐른 지금, 난 예비 선교

도 한다. 오히려 그분들이 지금은 못한다고 내게 말하는 것을 미안해하실 정도였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주님이 내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어깨에 힘을 빼. 네가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선교사 후보 리스트, 정해진 기한 안에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부담감, 선교사님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열심과 최선을 다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보낼 선교사 자원을 찾고 있는 내 앞에 주님은 나의 선교사 후보 리스트에도 없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그럴 때면 마음이 쿵 내려앉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힘을 쓸 필요 없었구나’ 다시 깨닫게 된다.

오늘도 나는 그때와 같이 나를 주님께 전부로 드리는 믿음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또 믿음을 배운다.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친히 행하실 일을 보는 영광이 더욱 사모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GNPNEWS]

최경민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1. 25 ~ 2. 13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김경선 김동영 김사회 김수미 김애신 김유남 김혜신 노은옥 박상기 박성규 박숙자 박영순 소인숙 손예린 송일양 안민자 안수경 오현문 유시아 유지완 윤경석 이동희 이순이 이은주 이정옥 이준진 이진희 정영숙 정효진 조명숙 조상국 조순희 조형광 차정규 최근희 최근희 하은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여자씨선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산동교회 샘물교회 웹 시은좌교회 신한테크 양덕원김리교회 은혜선일교회 주만교회 주식회사미션21 축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하원교회 헬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